

국내대학의 학사지도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를 중심으로 -

김효진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A Study on the Status of Academic Advising Systems in Korean Universities - Focusing on Dongguk University's Paramita College -

Hyo-Jin Kim
Paramita College, Dongguk University

요 약 최근 대학교육은 내용중심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의 강화, 대학조직의 학부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이 각 대학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흐름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학사관련 정보제공 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및 생애계획을 통합적으로 지도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는 학사지도제도가 대학교육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사지도제도의 정착화를 이루고 있는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를 살펴보고,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운영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대학의 학사지도제도 체계화 및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학습자중심교육, 대학생활적응, 학사지도, 학사지도제도, 학사지도조직

Abstract Recently, university education is changing from content-centered to learner-centered education not to deliver knowledge unilaterally but to help student to cultivate their skills to discover and apply knowledge for themselves. It means that students' cognitive or emotional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Also, because of universities' quantitative expansion, more strict evaluation on professors' research result, or conversion to a departmental system in a university organization, it has become a crucial issue for undergraduates to adapt to college life successfully. Along with this trend of university education, an academic advising system is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it as in not only provides students with necessary academic information but also helps them adapt to college life by developing their potentials and integrating their career and life plans.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status of academic advising systems in US universities, investigate how Dongguk University's Paramita college operates its academic advising system, and find out way to establish academic advising system in Korean universities.

Key Words : Learner-Centered Education, Adapt to College Life, Academic Advising, Academic Advising Systems, Academic Advising Organization

Received 26 August 2016, Revised 26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o-Jin Kim(Dongguk University)
Email: hyo-jin88@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최근 대학교육은 내용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인지적 발달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인지적 성장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학습자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시킨다[1].

한편 대학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하에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2]. 또한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 연구 업적평가의 강화에 따라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아울러 학부제 실시로 인해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의 적응이 힘들어져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학사정보 및 전공선택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하여 줄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4].

이러한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학사 관련 정보제공 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및 생애계획을 총체적으로 관리, 지도해주는 학사지도가 대학교육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2]. 학사지도는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도록 도움을 준다[5]. 이러한 학사지도는 대학에서 학문과 진로가 통합된 교육의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5].

학사지도는 미국대학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교수 연구 활동의 강화 및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에 따라 학사지도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학사지도제도는 학생들이 학업계획, 진로계획 등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진시켜준다[6]. 그러나 국내 대학의 경우 2000년에 연세대학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만이 학사지도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내대

학의 교육이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에만 집중하였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전공 및 진로탐색의 지도와 관련된 학사지도제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직 국내대학에서는 대학교육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학사지도제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정착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사지도제도의 정착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대학 중 학사지도제도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터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대학의 학사지도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학사지도제도

학사지도란 학생에게 필요한 학사관련 정보제공 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총체적 발달을 다루는 통합적 지도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학사지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내적 성장을 목표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 나가게 한다[5]. 또한 학사지도는 학문과 진로가 통합된 교육의 실행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스스로 인생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학사지도제도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7].

학사지도제도를 전문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혹은 단과대학 내에 학사지도를 전담하는 교수, 학사지도교수, 상담가 등을 두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학사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제도는 학사지도제도 전문화의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사지도교수는 학생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며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둘째, 학사지도교수는 학교의 업무절차 및 규정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의문사항이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학사지도교수는 전공 탐색 중이거나 전공 미결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학사지도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6]. 이렇듯 학사지도제도는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문과 진로가 통합된 교육의 실행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스스로 인생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2.2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

미국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양적인 팽창에 따른 학생의 증가와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로 인한 교수들의 재학생 면담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학사지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3].

19세기 말 '모델법' 시행으로 많은 주립대학이 발전하여 1876년 연구중심 대학인 Johns Hopkins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활동이 대학의 주된 기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간격이 더욱 커졌으며, 또한 여러 행정적 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후 1899년 Johns Hopkins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사이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학사지도제도를 미국 대학 내 최초로 시도하여 운영하였다.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Wesleyan University, Alfred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등이 학사지도제도를 운영하면서 더욱 정착화 되었다[7]. 이후 학사지도제도는 학사행정의 큰 관심사가 되었고 학사지도제도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학사지도제도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수업의 활동 뿐 아니라 수업 외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염두해 두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탐색하는 데 포커스를 두어 오늘날의 학사지도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1949년에서 1999년 사이에 미국의 대학은 1,800개에서 3,600개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학생은 220만 명에서 1,4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그 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15%에서 25%로 늘어남으로써 학사지도제도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3]. 이러한 필요에 따라 NACADA(1979)가

창설되어 학사지도제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체계화시켰다. Chickering(1983)[8]의 발달이론을 토대로 설정된 NACADA의 8가지 학사지도제도의 목적은 학사지도제도 내용의 지침이 되었다. 8가지 학사지도제도 목적에서 학사지도제도의 주요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 첫째, 학사지도제도 전반의 세부요건(등록, 교과목 선택, 시간표 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지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는 대학의 규모, 설립형태, 정책, 예산, 시설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다. Habley(1983)[9]은 미국 대학의 학사지도제도 조직구조를 교수전담형, 보충형, 분산형, 이중형, 전체 흡수형, 위성형, 자족형의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2.2.1 교수전담형

모든 학생이 학사지도를 받기 위해 교수에게 배정된다. 전공 미결정 학생은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 문리대 교수, 전공 미결정 학생지도 지원교수가 담당한다. 학사지도 조정자가 있지만 학사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는 개별 전공단위로 분산된다. King & Kerr(1995)[10]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 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전체 대학의 35%가 교수전담형 조직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사지도 수준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2.2 보충형

모든 학생이 학사지도를 받기 위해 교수에게 배정된다. 일반적인 학사정보 제공과 학생을 위한 의외체계를 가진 학사지도실이 있지만 학사지도 업무처리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학사지도제도 지휘는 개별전공 단위에서 하지만 교수전담형보다는 학사지도실에서 강화된 조정권을 가진다. 또한 학사지도실에서는 학생정보를 분석해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만 면담하는 형식을 갖춘다. 전체 대학의 16%가 보충형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사지도실에 대한 교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구조를 성공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다.

2.2.3 분산형

전공 미결정 학생과 준비가 부족한 학생 등은 학사지

도교수가 지도하고 나머지 학생은 교수에게 소속된다. 전공 미결정 학생이 전공을 정하면 전공 교수에게 배정된다. 학사지도교수는 자체조정, 지휘체계를 가지며 학교 전체에 대해 학사지도 조정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교수에게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도 의뢰를 받아 지도할 수 있다. 전체 대학의 20%가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4년제 주립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학사지도교수와 전공 교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2.2.4 이중형

각 학생은 두 명의 지도교수에게 학사지도를 받는다. 전공교수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지도를 하고 학사지도교수는 학사관련 정책과 절차 등을 지도한다. 학사지도교수는 전공 미결정자를 지도하며 학교 전체의 학사지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정, 지휘 체계를 갖는다. 전체 대학의 6%에서 채택하고 있고 전공교수와 학사지도교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전공교수와 학사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2.2.5 전체 흡수형

학사지도교수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학사지도를 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이 해결되었을 때 전공교수가 지도한다. 학생들은 입학 뒤 한 두 학기 혹은 일정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학사지도를 받는다. 5%의 대학만이 이 형태를 선택하고 있으나 학사지도교수가 대학생활의 첫 단계를 지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2.2.6 위성형

각 대학원, 단과대학 혹은 전공별로 학사지도제도 체계가 갖추어진 형태로 각 단과대학 등에 소속된 학사지도교수가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전공 미결정 학생은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미국대학의 3%의 대학만이 이 형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의 학사지도를 조정하는 것이 위성형 조직의 중요한 과제이다.

2.2.7 자족형

모든 학생은 입학 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사지도

교수가 지도하며 학장이 학교 전체의 학사지도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미국대학의 16%에서 시행 중인 자족형은 학생이 재학기간 동안 학사지도 전문가의 지도와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전공 교수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학사지도제도

국내 대학의 경우 2000년에 연세대학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만이 학사지도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중 최근 학사지도제도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터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 학사지도 교과목 운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동국참사람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 교양학부대학인 파라미터칼리지를 설립하였다. 동국대학교 파라미터칼리지에서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역량 개발을 위해 학사지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사지도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목인 ‘동국인의 자기계발 1, 2’를 공통교양으로 지정하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학사지도 교과목의 주요 목표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학습법과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도하며, 신입생들에게 대학공부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본 교과목의 강의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교육철학, 인재관, 진로설계, 학습윤리, 대학생활 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학사지도 교과목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1학기에 운영 중인 ‘동국인의 자기계발 1’은 동국인의 정신, 학습활동, 대학생활 설계, 참사람인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인의 정신’에서는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대학생활의 설계에 대한 이해,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에서는 효과적 학습법에 대한 이해, 대학에

서의 시험준비에 대한 이해, 대학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 설계’에서는 대학생활 계획 수립 및 실천능력 개발, 시간관리 방법, 자기 자신의 인생 로드맵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사람인성’에서는 학습윤리와 인성에 대한 이해, 봉사과 인성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대인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2학기에 운영 중인 ‘동국인의 자기개발 2’는 학습활동, 참사람리더십, 진로설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에서는 자신의 학습스타일 진단하기, 스터디 그룹의 운영과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발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사람리더십’에서는 창의역량 개발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이해, 독서와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의 중요성과 리더십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설계’에서는 자기이해를 통한 꿈과 현실의 가치 이해, 전공과 진로에 대한 이해, 직업의 개념 및 윤리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학사지도 관련 교과목을 강의 중이며, 국내대학 최초로 학사지도 관련 교과목 교재를 개발하여 학사지도 교과목 수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3.2 학사지도 면담 운영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에서는 학사지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학사지도 교과목 강의와 연계하여 일부학과를 제외한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1:1 학사지도 심화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사지도 면담의 운영을 위해 학사지도교수가 학생별로 학생면담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온라인 학사시스템에 학생면담결과를 입력한다. 이러한 학생면담 결과는 해당학생의 학과 및 전공 교수들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학생 면담 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특별 관심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전공 교수와 학사지도교수의 상호연계 아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 개인이 처한 문제를 필요에 따라 각 전공지도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사지도 면담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담일정 안내

학사지도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시간을 정하기 위해 학사지도 교과목 강의시간에 면담안내지 및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기초로 면담시간을 정하였다. 면담신청서에는 학사지도교수의 개인 강의시간과 면담 가능시간, 면담시간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사지도교수의 면담 가능시간과 자신의 면담 가능시간을 조정하여 면담희망 요일과 희망시간을 1,2,3 순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학사지도교수가 면담일정을 확정하여 온라인 전산 시스템인 E-Class에 면담일정을 업로드시켜 공지하였으며, 학사지도 교과목 시간에 면담일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면담 2~3일 전에 SNS 문자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면담일정을 제공하였다.

② 면담 준비단계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더욱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면담실의 환경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면담실 입구에 식물과 간단한 음료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즐겨보는 책을 전시하여 면담 학생의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또한 학생의 신상정보 및 면담 내용의 보완과 관리를 위해 면담 중 방음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근로학생의 도움을 받아 학사지도 면담시간 및 장소 재확인, 면담 스케줄 작성과 재조정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③ 면담단계

학사지도교수는 학사지도 면담 전 면담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여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학생의 주소지와 입학 전형, 고등학교, 전 학기 이수과목, 이수학점, 성적, 학과 지도교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기초자료’를 근간으로 면담 시 이를 활용하여 학사지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에서 자체 시행한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 내용을 면담 시 참고하였다.

④ 면담 기록단계

면담정리는 면담 중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이 주가 되고, 학사지도교수의 지도 및 안내 내용도 축약하여 면담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학생과의 면담 중 특이사항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에 따로 적시하였다.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면담기록지에 기록한 후 온라인 전산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전산 입력 시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야기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전산 입력된 학생들의 기록은 학과 및 전공 지도교수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학생의 진로계획 및 면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담 중 주의가 요망되는 학생들의 경우 학사지도교수와 학과/전공교수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학사지도교수와 학과/전공교수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학기부터 ‘학사지도 연계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전공교수와 학사지도교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이루어 신입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과별 특성에 알맞은 신입생 지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3.3 학사지도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동국대학교 파라미터칼리지에서는 학사지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사지도 면담수기 공모전

학생들이 학사지도 면담을 통해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경험담을 주제로 ‘학사지도 면담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사지도 면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생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② 학습공동체

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11]. 학생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해냄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2016년 2학기부터 학사지도와 관련

된 3개의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고려하여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창직활동인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두 번째로 늦깎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계획 수립을 위한 ‘늦깎이 신입생 길라잡이’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및 공동체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DG AH’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3.4 신입생 관련 R&D

동국대학교 파라미터칼리지에서는 학사지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입생 관련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신입생 면담 가이드북 제작

‘신입생 면담 가이드북’은 학사지도 면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학사지도 면담수기 공모전’의 학생 인터뷰 내용의 질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학사지도 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사지도 교과목의 운영성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학사지도 교과목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②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 실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중도탈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적응, 정서적응, 진로적응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이의 결과를 학사지도 면담과 연계하여 면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학생지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결론

최근 대학교육은 내용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중심 교육

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중요시하고 있다. 학습자중심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12,13]. 이러한 교육의 흐름에 따라 학생에게 학사관련 정보제공 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과정인 학사지도제도가 대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5,14]. 학생들은 학사지도제도를 통해 학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5,15]. 이러한 학사지도제도는 미국에서 1983년에 Johns Hopkins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경우 2000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만이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사지도제도가 정착화 된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를 살펴보고, 국내대학 중 학사지도제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학사지도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의 경우 학사지도관련 교과목을 공통교양으로 지정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학사지도 교과목의 강의와 연계하여 일부학과를 제외한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비교과프로그램인 ‘학사지도 면담수기 공모전’을 통해 학사지도 면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학생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사지도 교과목과 면담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신입생 면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중도탈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사지도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는 학사지도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사지도 교과목의 강의와 면담수행, 비교과활동과 신입생 R&D 활동을 통해 학사지도제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들의 학사지도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사지도제도의 조직을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즉 교수들이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전담형, 보충형을 선택할 것인지, 학사지도교수와 교수가 함께 학사지도에 참여하는 분산형, 이중형을 선택할 것인지, 학사지도교수가 학사지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도하는 위성형, 자족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학사지도제도 조직에 관한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지도제도 조직의 결정을 위해 대학 설립형태, 규모, 정책, 예산,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면서 융통성 있는 조직운영이 가능한 학사지도제도의 조직형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중심의 개별화된 학사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시 되고 있는 최근의 교육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 및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학사지도제도 운영을 위해 대학 전체의 학사지도에 관한 정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사지도 정보의 통합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사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학사지도교수와 전공교수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사지도제도에 관한 다양한 교과목 개발과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고 전인적인 발달을 배양하여 학사지도제도를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사지도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사지도교수와 학생 간 면담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사지도교수, 전공교수, 교내 부처 간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사지도 정보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사지도제도 구축방안을 통한 학사지도제도의 체계화는 학생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의 균형 있는 학습을 이루도록 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사지도제도의 정착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대학의 학사지도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대학 중 학사지도제도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학사지도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구축 방안을 학문적으로 모색해보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살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학사지도제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대학에서 이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대학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사례를 통해 학사지도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대학에 학사지도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대학 중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의 학사지도제도 현황만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수이지만 국내 대학 중 학사지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이를 비교분석하여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국내외 학사지도제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Pascarella, E. T. &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2] Eun-kyung Kim, "Achievement and Future Directions of Specialized Academic Advising System to Kore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3, No. 3, pp. 1-28, 2005.

[3] Mi-Kyung Jang & Sang-Hee 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related Variables and the Frequency of Academic Advising in Korea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15, No. 2, pp. 59-71, 2002.

- [4] Ji-Won Lee &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5] Lowenstein, M.,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al Theory of Advising, The Mentor", *An Academic Advising Journal*, Vol. 1, No. 4. 1999.
- [6] Eun-Kyung Kim, "Effective Academic Advising Delivery System: Focusing on Soongsi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s*, Vol. 6, No. 2, pp. 243-265, 2012.
- [7] Hwan-Goo Moon & Il-Moon, "Academic Advising Program Current Status of American and Korean Colleg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4, No. 2, pp. 20-26. 2001.
- [8] Chickering, A. W.,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3.
- [9] Habley, W. R., "Organization Structures for Academic Advising: Model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Vol. 24, No. 6, pp. 535-540, 1983.
- [10] King, M. C. & T. M. Kerr, "Organizing and Delivering Academic Advising for First Year Students", In *Upcraft, M.L. & Kramer, G. L.(Eds). First Year Academic Advising: USC press: CA, U.S.A: 1995.*
- [11] Rogers, D. L. & L. M. Babinski,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 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12] Eun-Jeong Kim, Jung-Mi Yang, Won-Kyung Lee & Hye-Kyung Hong, "Improvement of the First-Year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rst Year Experience Assessmen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2, No. 1, pp. 63-78, 2008.
- [13] In-Ho Jung &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 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14] Eun-Kyoung Kwon, "Career Counseling of University Students before and aft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Ver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7, pp. 75-81, 2013.

[15] Sun-Young Yun & Shin-Hong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12, pp. 395-403, 2014.

김 효 진(Kim, Hyo Jin)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 학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서비스마케팅, 유통관리, 소비자행동

· E-Mail : hyo-jin88@hanmail.net